

사·부·대·중

스님과 자전거

나무가 우거진 한적한 길을 비구니 스님이 따스한 햇살 아래 걸어간다. 그 뒤로 저만치서 수녀님이 자전거를 타고 스님 곁을 지나가다 다시 되돌아온다. 그리고는 둘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사라진다.



최현선 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라는 원시적인 수단만을 사용하는 불교가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인터넷회사의 광고 내용이다. 판문점의 상황을 묘사하였던 이 회사는

이전 광고를 통해 남북의 벽을 없앤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종교간의 벽을 허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만약 이 광고 내용의 상황을 바꾸면 어떻게? 신길을 수녀님이 지나가는데 그 곁을 비구니 스님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내용으로 말이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스님과 자전거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나는 이 광고 한 편에 일반인들이 스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기록과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 자전거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모든 것을 이용하는 기독교와, 21세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보

지 몰라도 실질적인 메시지는 힘 있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불교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읽히는 것이다.

신년을 맞아 교계의 한 신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을 조사하였는데 성철스님, 서용스님, 원효스님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4위가 도법스님이라는 사실이다.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들만 생각한다면 1위인 셈이다. 이런 결과는 도법스님이 광고의 수녀님처럼 자전거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 이 바로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는 광고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외국인 불교체험 프로 '多多益善'

우리나라도 구랍 8일자로 외래관광객 5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연간 500만명의 외래관광객 유치는 아시아에서는 중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은 7번째. 이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여행 자유화와 남북한 관광협력 등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인 육성과 지원의지가 배경이 되었다.

올해는 정부가 지정한 '한국방문의 해'와 '지역문화의 해', 더구나 2002년은 관광특수가 예상되는 월드컵의 해다.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찰에 어느때보다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해 질 전망이다.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인 이때, 불교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점검해 본다.

'한국 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불교문화 홍보 '절호기회'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이 선호하는 서울 관광 30선' 설문조사에서 연등축제는 14위, 강남 봉은사는 26위에 올랐다.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교계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만큼, 불교 전통행사를 개발·보존해 불교 알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법파공연이나 사찰음식 및 다도 시연, 육법공양, 선무도·참선 실수 등 불교만이 가진 독특한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한다면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한국 관광자원의 대부분이 불교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소개책자나 리플렛, 가이드의 배치, 시청각 홍보물 제작 등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 사찰의 도로 표지판이 누락된 곳이 많고, 문화재 영문 안내판 역시 전문용어가 남발돼 내용 전달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외국인 대상 100대 관광거리'에 불교관련 소재는 경주 불국사 및 석굴암, 양산 통도사, 수원 용주사 및 범종, 여주 북아불교박물관, 대구 갖바위와 동화사, 청

도 운문사, 부산 전통사찰음식 및 선재형 등 8건만이 포함됐다.

외국인을 위한 불교관광상품 역시 미비한 상태이지만, 몇 개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 또는 준비중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88올림픽 때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영산재 공연을 벌여 온 서울 봉원사는 정부 지원 없이 무상으로 공연을 펼치다보니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 봉원사는 18일 국제관광사입부를 설치하고 정부에 관광개발자금 지원을 요청키로 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의 봉은사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다도실수, 참선, 사찰에 잘 교육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국제포교사를 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점차 시너지 효과로 자리잡고 있다.

98년 국제포교부를 신설, 외국인 포교에 나선 통도사 부산포교원은 매달 20~30명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사찰 문화유적 답사, 참선, 차발기행 등 문화행사를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국제선원을 갖춘 서울 화계사는 외



○종단협의회는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지난해 11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로 '외국인 수행자 및 선교사 한국전통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해인사는 경남도의 협조아래 외국인 대상의 수련회를 올 여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예불·좌선·사경과 큰스님 법문으로 진행되는 수련회는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5월 수원 올림픽구장 주변에 준공 예정이었던 수원 봉녕사의 한국

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재 조계종 등 종단차원의 준비상황은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위원회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다.

포교원은 외국인 사찰안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6월경 국제포교사 및 관광가이드와 함께 연수회를 준비하고 있다. 포교원은 3년간 지속해 온 관광가이드 연수로는 국내 가이드 3인여명 전원을 교육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원봉사자 조직을 구성해 사찰안내에 투입할 방침이다.

불교위원회는 연등축제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가꿔간다는 계획아래 어느 해보다 일한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한국방문의 해'를 낱말하고 구체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풍부한 전통 문화유산을 홍보하지 못하는 불교계는 더욱 낭패다. 다양한 홍보전략과 사찰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의 개발, 관광프로그램의 연계 등을 조정해 줄 임시기구가 절실하다는 것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a.com)

목탁소리

이경숙 (취재1부 부장)

조계종 제 21교구본사 송광사 사보인 <불일회보>가 지난 12월호로 기약已久的 휴간에 들어갔다. 12월호가 통권 240호로 1982년 20년동안 발행된 셈이다. 사보(侍報)의 '원조(元祖)'라는 말이 새삼 되새겨져 휴간소식이 안타깝기만 하다. 휴간의 큰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불일회보>는 매달 회비로 들어오는 것은 100만원 미만이라 본사로부터 600만원을 지원 받는데 송광사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말사 주지회의에서 결국 <불일회보>의 휴간을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의 3대 사찰중 하나인 강남 봉은사도 지난해 8월부터 사보 <봉은>지의 발행을 중단하고 있다.

조계종 본사 24곳과 여타 대형 사찰 가운데 제대로 된 사보를 내는 곳이 얼마나 될까. 사보는 돈은 계속 들어가지만 길고로 뚜렷이 드러나는 효과가 없으니 일부 스님들의 경우 "괜히 그런데 '남비' 하지 말고 복지같은 다른데 써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보는 포교자료가 되거나 불교인문서가 될 수 있다. 사찰 관광객들

'불일회보'와 '봉은'

중 사보에 게재된 법문이나 좋은 칼럼을 보고 불교에 호감을 가질 수 있다. 또 사보는 사찰의 행사·역사를 정리 기록하는 사적이 역할도 한다.

해인사에서 내는 <해인>지는 일반인(특히 지식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어떤 신도들은 불교교양대학에 다니거나 불서를 사 보는 등 의도적으로 공부하겠지만 대부분 한달에 한 두번 정도와 법문 듣고 기도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들에게 사보는 훌륭한 문화전달자 교육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건도 쉽게 풀어주고 불교계 소식도 알려주며, 사찰내 문화재 등에도 눈을 뜨게 해준다. 또 집지행태의 사보는 한달내 내 두고 두고 읽을 수도 있고 남에게 주어 돌려가며 읽을 수도 있다.

사찰마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 포교를 서둘러 해야 할 판에 기존에 발행하던 사보마저 중단하니 답답하다. 사보가 문서포교와 신도교육의 첨병자라는 인식과 '꼭 해야 한다'는 사명감만 있다면 (계속 발행하는방법은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주악비천도' 캐릭터 만든 원주 송광사 지원스님

"불교상품 개발도 포교죠"

"문화재는 그 자체로 존귀한 뿐 아니라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손쉽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정부는 알맹이 없는 '구호성' 관광진흥책은 자제하고, 문화유산을 전승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북 원주 송광사 주지 지원스님은 지난해 대웅전 천정화인 주악비천도(婁樂飛天圖·사진)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귀여운 월드컵 캐릭터로 재현해내 화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이를 이용한 다도, 배지, 부채, 방석, 엽서 등 70종의 감각적인 팬시상품을 개발해 신도들과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99년 5월 이런 독창적인 상품 개발을 구상하고 작업에 몰두하면서 재정·인력난으로 고행하던 고행을 했다는 지원스님은 정부와 종단이 무관심에서 벗어나 세심한 문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이 고안한 주악비천도 캐릭터는 2002년 전주에서 열리는 월드컵과 2001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맞춰 개발한 문화상품이다. 아직 대한축구협회로부터는 공식적인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정몽준 회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

고 있다. 그러나 캐릭터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문화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변의 반응이 좋다 보니, 스님은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 전에 전국 5개 도시에서 주악비천도에서 재현된 탱화와 캐릭터, 팬시용품은 물론 복식 재현(패션쇼), 춤사위 재현 등 순회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미술에 대한 깊은 안목을 갖추고 보물 4점과 지방문화재 6점을 발굴, 문화재청에 등록하는 성과를 내기도 한 스님은 사찰 문화재 발굴과 성보기구가 후손들을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2001학년도 무불선학대학원 2기 신입생 모집

선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학대학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2월 1일 ~ 2월 24일
모집내용: 주간반 00명, 야간반 00명, 통신반 00명(비디오TAPES수강), 인터넷 수강가능
전형 및 구비서류: 서류전형(전형료 2만원)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자격: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및 동등한 불교 교리 숙지자, 선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희망하는 자
합격자 발표: 2001년 2월 26일 ~ 28일(개별통지)
개강 및 강의시간: 3월 5일(총 15주) · 매주 월·화요일
등록금(학기당): 주·야간반: 47만원, 통신반: 55만원(분납가능), 과목별 수강: 과목당 20만원(통신 23만원)

개설강좌
과목명 강사 요일 및 시간
선어록 강독 홍선스님(승가대 포교사회화과)
선과 서양철학 심재홍(서울대 철학과)
한국선사상사 최병현(서울대 사학과)
입학식: 2001년 3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본원 법당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운빌딩 8층(135-010)
전화: 541-0002~3, 팩스: 541-0004
Homepage: http://www.moobool.com
E-mail: moobool@netsgo.com
덕숭총림 수덕사 부설 무불선원·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학대학원

2001학년도 제10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출강 통신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法師)의 정의와 역할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여 정의와 역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전: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과 법사증은 수여함,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 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법사법위품수과 심의위원으로 위촉 및 추천함,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1번지(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